

건설산업에서의 황금률 (Golden Rule)



조기호
환경이엔지(주) 대표이사

황금률! 상생의 기본철학으로

황금률(golden rule)은 ‘황금과 같은 율법’의 준말로 수 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의 하나이자 역사상 가장 널리 퍼져있는 삶의 법칙 중 하나로 윤리원칙을 말한다.

신약성서에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 어라”란 구절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이다. 이 행위의 규범은 그리스도교가 이웃에게 해야 할 도리를 요약한 것으로 기본적인 윤리원칙을 말하고 있다. 성경의 이 말이 적극적인 황금률 이라면 공자의 논 어에서 ‘남이 너에게 하면 싫은 것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 라’는 표현은 소극적인 황금률로 이야기 한다. 이처럼 황 금률 법칙의 근본은 ‘사람은 모두 동일한 존재’로 평등사 상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평등의 의미에서 우리 건설산 업을 상생, 발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얼마 전 현 정부의 정책 입안 등 국정외의 중심기관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가 퇴임 후 모대학 교수로 계신 분의 강 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 자면, 국정운영의 인식과 주체 단위가 이제는 ‘국가중심’ 에서 ‘개별국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과거 60~80년대의 산업화시대에는 국가가 주도적으 로 만든 법과 제도에 다소 문제가 있는 정책을 수립, 집 행하여도 국민은 아무 이의 없이 지지하고 따르면서 경 제발전에 기여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 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국가-기업-개인 간의 관계에 재 인식을 하게 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에 한계가 드러 나 이제는 개인의 권리와 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는 내용이었다. 이 강의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러한 권력과 정책, 권한 이동으로 인해 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표출되는 욕구분출에 대해 한편으론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건설산업 또한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한다 해도 관계집단과 개인의 이해를 앞세운 저항과 비협력에는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는 지난 1월 건설경제지 오피니언 코너를 통해 ‘상생과 공생을 기대하며’란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글을 통해 새해에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상생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정부정책과 수직구조하의 건설문화, 불공정한 게임으로 업역 간의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건설산업 선진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도 여기서 한번쯤 경제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우리사회는 안타깝게도 각계각층, 각 사업장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원칙과 질서는 붕괴되고 이기적인 모습과 불협화음이 만연화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사회와 경제가 한걸음 더 선진화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일수록 우리 건설산업에서도 황금률의 참 뜻을 되새기고 경제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감으로써 재도약과 함

께 우리 사회를 리드하기를 기대한다.

황금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적 잘 알려진 천국과 지옥에서의 음식 먹는 광경을 비유로 들고자 한다. 천국과 지옥에서는 각각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데 지옥에서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아 아수라장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먹는다. 그 이유는 천국에서는 음식을 서로 먹여주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다른 이들을 공정히 대해 준다면 서로가 공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여기에는 상호관계의 도덕(reciprocity)과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황금률(golden rule)의 뜻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건설산업 역시 ‘나’라는 존재에 ‘너’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황금률의 법칙을 되새기면서 상생과 공생의 건설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설인 모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건설산업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황금률의 철학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갑시다!” 🌈

※ 이 내용은 건설경제 7월 3일 오피니언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